

직장인들의 휴가 계획

을 여름 직장인 상당수는 8월 중 4~5일 가량 휴가를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취업포털 커리어가 휴가계획을 세운 직장인 1,7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50.2%가 예상 휴가기간으로 4~5일을 꼽았다.

이어 3일 이내가 30.1%를 차지해 주5일 근무제 확산과 함께 자율휴가제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한 여름을 피해 휴가계획을 세운 직장인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.

이 밖에 6~7일 14.9%, 8~9일 3.2%, 10일 이상 1.6% 순이었다. 휴가 시점은 8월 초순 35.2%, 7월 말 22.5%, 8월 중순 13.4%, 7월 중순 10.2%, 8월 말 8.0% 등으로 나타났다.

구체적인 휴가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42.3%가 국내여행을 하겠다고 답했으며,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응답자는 16.9%였다.

다음으로 교육강좌수강이 10.2%를 차지해 여름휴가 기간에 자기개발을 하려는 직장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이 밖에 집에서 휴식 8.5%, 독서 및 공연관람 7.0%, 레저스포츠 5.9%, 쇼핑 4.7% 등으로 나타났다.

계획하고 있는 여름휴가 기간이 휴식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'그렇다'와 '아니다'가 각각 35.7%, 31.3%로 의견이 엇갈렸다.

자유롭게 휴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면 며칠로 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는 6~10일 44.8%, 11~15일 21.8%, 5일 이내 15.5%, 21~30일 7.9%, 16~20일 4.9% 순이었다.

한달동안 휴가를 쓴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묻는 질문(복수응답)에 대해선 31.1%가 '해외여행'이라고 답 했고, '국내여행'은 21.8%로 나타났다.

다음으로 단기연수교육 참가(9.1%), 외국어능력향상(8.4%), 피부 및 몸매관리(7.6%), 오지탐험(6.1%), 봉사 활동(5.2%) 등의 순이었다.

이외에 성형수술, 서적집필 등을 하겠다는 답변도 있었다.



